

【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

수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구치소장입니다.

2014년 11월 6일, 09:15경 8관구 팀사무실에서 팀장 최모 교감이 거실내 폭행피해자로 자술서를 작성 중인 8상 15실 수용자 1명으로부터 경어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에 나이도 어린 놈이 버릇이 없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이놈 저놈이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채차례 때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폭행 가해 수용자는 징벌조치하고 관련 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행정조치와 사건송치 등 형사적 조치를 병행하여 엄히 처벌하겠으며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근무감동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향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용자 여러분들께서도 동료수용자 또는 직원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턴폰 호출 또는 가장 가까운 근무자, 감독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행 및 폭언 사고의 상당수가 식기당번제 등 수용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니, 수용자 상호간에 약한자를 돕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수용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시 신문을 불편하고 투명하고 인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 말씀 드립니다.